

Market Index / 1일

코스피지수 ▼ 2129.74 -0.88

코스닥지수 ▲ 696.00 +5.47

유가(WTI, 달러) ▼ 58.47 -0.96

환율(원)

1USD 100¥ 1179.07 1086.86

살때

1138.53 1049.48

팔때

살때

1337.75 1285.55 1EUR 177.71 160.79 1CNY

어업협정 결렬 장기화... 먼바다 조업 언제까지

일본EEZ 입어금지 여파 도내 연승어선 중국 먼바다로 조업 경비·사고 등 어민 고충 심화... 道 특별대책 마련

한 일 어업협정 결렬 장기화로 도내 어민들의 고충이 심화하자 제주도가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한·일 어업협정 결렬 사태로 그동안 조업에 영향을 받은 근해연승어선들이 정책자금 특별 용자 받을 수 있게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지금 관리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금 대상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상대

국 수역에 입어를 제한받는 어업자'를 추가하고 이들이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기금을 빌릴 수 있게 시행 규칙을 손질할 방침이다.

특별 용자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도내 근해연승어선은 모두 148척으로 주로 갈치를 잡는다. 이들 어선은 한 일 어업협정 결렬된 지난 2016년 7월1일부터 3년째 일본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못하고 있다. 대신 어쩔 수 없이 서귀포 동남쪽으로부터 483~644km 떨어진 중국EEZ로 가 조업을 하고 있다.

일본EEZ는 서귀포 남쪽으로부터 160km 떨어져 있어 도내 어선들이 오가는 데 하루 정도 소요되지만 중국EEZ는 그보다 2배 이상 멀어 왕복하는 데만 6~7일이 걸린다.

한 일 어업협정 결렬 이후 근해연승어선 1척당 추가 부담해야 하는 유류비는 한해 50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도는 도내 수협을 통해 유류비를 제외한 한 일 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전체 조업 손실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먼바다 조업은 출어 경비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높인다. 올해 2월 13일에는 서귀포시 남동쪽 383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서귀포선적 근해 연승어선 A호(29t, 승선원 9명)

가 전복돼 50대 선장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 어선들이 먼바다 조업에 나섰다 사고를 당한 사례는 지난 해에만 37건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근래 들어서는 근해연승어선의 주력 어종인 갈치의 어획량까지 줄어 고충이 더 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 이번 오사카 G20 회의 직후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서서 등 경색된 한 일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현 상태에선 한 일 어업협정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품질인증 품목 사후관리 조사

30개 기업·108개 제품 대상 부적합 품목 시정·취소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제품 품질인증(이하 JQ) 품목의 품질일관성 유지를 위해 JQ인증 또는 사후관리 심사 후 1년이 되는 30개 기업·1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상반기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사후관리 대상은 인증심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진행하며, 인증업체 시설 및 제품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시장조사 등을 통해 상표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제품의 심사기준 이행 및 품질관리 이행 여부(생산, 가공, 취급 등)를 포함해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및 인증표시 적합 여부, 판매 제품 조사 등이다.

제주도는 사후관리 조사 결과, 품

질평가 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미인증 제품에 JQ상표를 부착하는 등 상표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 조치 및 경고 후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엄격한 사후관리와 함께 올해부터 JQ인증기업의 인증제품 품질혁신을 위해, 현장 심사 등을 통해 19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에 1000만원 범위에서 시설개선비(환경개선사업)를 지원(총 1억 9000만원 규모)한다.

JQ인증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인증 품목 작업장 개·보수, 설비개선 등의 지원을 통한 제품의 품질 향상과 JQ 인증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제주도는 올해 성과를 지켜본 후 성과가 좋을 경우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지역 SIMS 시범 운영 도내 어린이집 9곳 선정

제주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SIMS)이 시범 운영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제주도와 합동으로 7월부터 도내 어린이집 9개소를 우선 선정한 친환경 식재료 급식 수수 및 밭주와 보조급 관리방식에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aT와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제주도청에서 지자체 학교급식센터, 권역별 공급업체, 어린이집 담당자를 대상으로 SIMS 교육을 실시했다.

aT와 제주도는 SIMS 도입에 따라 식재료 주문 및 정산의 전산화, 서류제출 불편 해소, 계약절차 간소화, 보조급 통계 정확성 확보 등 급식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88개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운데 29곳이 SIMS를 사용하고 있다.

aT는 향후 학교급식 이외에 어린이집·지자체·공공기관·복지시설 등으로 SIMS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급식 수·발주에 비롯해 납품과 보조급관리시스템 제공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및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 전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프리미엄 이코노미 '뉴 클래스' 운영 제주항공이 '고객지향적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드 가운데 하나인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인 '뉴 클래스(New Class)' 운영을 시작했다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도 꺾였다

6월 매매가격지수 마이너스 주택시장 하반기 불황 지속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도 소폭이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던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지난 6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이어 단독주택도 하락 국면을 맞으면서 냉랭한 제주지역의 주택시장의 모습을 반영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6월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15%다. 지난해 12월 0.55% 성장에서 올해 1월 0.16% 2월 0.17%, 3월 0.10%, 4월 0.11%, 5월 0.07%로 증감률은 둔화세를 보였다. 지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것은 2014년 6월 이후로 5년 만이다.

올해 상반기 도내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30%를 기록했다. 아파트가 이 기간에 1.05%, 연립

주택이 0.82% 각각 감소했다. 이에 반해 단독주택은 0.46% 올랐다. 하지만 6월 들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 내 주택시장의 불황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체적으로 도내 전세가격지수도 상반기에 0.80% 줄었다. 아파트가 1.58%, 연립주택이 0.75%, 단독주택이 0.34% 각각 감소세를 보였다. 월세도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세에 견줘서는 하락폭이 작다.

제주관광 이플 스타트업기업 본격 육성

지원 대상 5개 업체 선정

제주관광공사는 '제이스타트업 창업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한 지 3년이 안된 도내 관광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자금과 컨설팅,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관광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1·2차 심사를 거쳐 '우두'를 비롯한 '비즈튜디오', '(주)윈드위시', '소사이터브', '바람이

되다' 등 5개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두는 제주 우뚝가사리를 기반으로 관광객을 위한 친환경 디지털 플랫폼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비즈 스튜디오는 여행 영상을 원하는 관광객을 위해 편집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사 측은 밝혔다.

이밖에 제주 레저관광에 필요한 날씨 앱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빅데이터 기반 제주여행 큐레이션 서비스 등을 선보이기로 하는 등 미래 제주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친환경 인증 교육과정 개설 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이하 농관원제주지원)이 7월부터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 교육과정을 개설, 본격 시행한다.

농관원제주지원은 친환경 인증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등 인증사

업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7월부터 집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은 2년에 한번, 최초 인증을 신청할 때는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시에는 2시간 이상의 교육을 각각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제주지원은 7월부터 도내 친환경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 농업교육을 시행한다.

백극기기자 haru@ihalla.com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ju Hanjin Real Estate. It lists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064-723-8850 and 010-4692-0952. The Jeju Hanjin logo is prominently displayed.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ju Keen Real Estate. It features a portrait of a man and lists several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 Contact information: 726-4585, 010-8660-1263.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eju Bubu Real Estate. It features a portrait of a man and lists several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 Contact information: 010-2800-4595, 064-747-5115.

Advertisement for Cheilsa Real Estate. It features a portrait of a man and list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 The ad includes the website http://www.cheilsa.co.kr and contact information: 1180-12 TEL: 722-0914 FAX: 722-9098. A map shows the location of Cheilsa Real Estate in Jeju City.